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303 - 331

인문학 강좌를 통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최금희*

본 연구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형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문학 강좌 자료와 3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및 비장애인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시각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적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프로그램 참여동기,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문학 강좌는 인간 행위자(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 강사)와 비인간 행위자(코로나19 정책, 비대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와 포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ANT 관점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유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하며,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사회적 통합, 인문학프로그램,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코로나19 팬데믹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초래하며 사람들에게 심리적·사회적 제약을 가중시켰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66.4%의 국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61.3%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한다(이은환, 김욱, 2021). 이러한 제약 속에서 특히 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성과 자율성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시각적 정보를 대체할 수단이 제한되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였다(유지영·오충원, 2020;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조사 결과, 2021; 원영미, 전지혜 2023).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인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한상일, 2012). 그러나 실질적인 사회통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원 운영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약 2억 원의 활동지원급여 환수 통보를 받았고, 결국 심리적 부담과 좌절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다¹⁾. 또한,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도서의 부족은 문화적 접근권에서의 격차를 보여준다²⁾. 이러한 사례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이 여전히 미흡함을 나타낸다.

사회통합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문학 강좌는 이러한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인문 교양교육, 시민 참여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구분되며(김두영·박원희, 2013), 특히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상호 존중과 포용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황지연, 2017; 박종은, 2022)과 여가 활동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김두영·박원희, 2013; 이계승, 2014; 김삼원 외, 2018; 김두영 외, 2022),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원영미, 전지혜 2023; 오성은 외, 2023)들은 어느 정도 이루지고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가 활동 및 교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확장이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

1) 경향신문, 2024.10.16. 기사 참조

2) KBS 2024.11.11. 뉴스 참조.

로 다른 연구는 전무하다.

Nirje의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 조건을 가지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Nirje, 1969). 또한 Wolfensberger의 사회적 역할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 SRV) 이론은 사회적 평가절하를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들에게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Wolfensberger, 1983). 이러한 이론들은 시각장애인 and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인문학 강좌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문학적 수양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어떻게 확장해가는 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약 9.5%에 해당하는 251,620명이며, 대구광역시에는 약 4.8%에 해당하는 12,067명이 거주한다(‘ 시도별, 장애 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 수’, KOSIS, 2021). 이에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적용하여, 인문학 강좌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촉진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인문학 강좌가 두 집단 간의 사회적 통합³⁾과 포용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 강좌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인문학적 요구에 부합되는가?

둘째, 인문학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적 요소들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서적 연결과 화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정부의 인문진흥기본계획에 의하면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탐구이며, 이를 통해 인간적 능력을 배양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 해결,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부록 1 참조).

II. 이론적 배경

1.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연구

시각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문학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선행연구들은 시각장애인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황지연, 2017; 박종은, 2022), 여가 활동의 어려움(김두영·박원희, 2013; 이계승, 2014; 김삼원 외, 2018; 김두영 외, 2022),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동안 시각장애인들이 겪은 어려움(원영미, 전지혜, 2023; 오성은 외, 2023)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시각장애인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가 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인문학프로그램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먼저, 황지연(2017)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장애 적응의 어려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장애 적응이 어려울수록 성취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회복탄력성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은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원영미, 전지혜, 2023). 이는 시각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러한 과정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인문학프로그램과 같은 정서적 학습 활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 활동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도 주목할 만하다. 이계승(2014)의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삶의 질이 개선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한계로 인해 가족 외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여가 활동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김두영 외(2022)의 연구는 시각장애인이 여가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 교통 및 여가시

설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인이 사회참여를 제한한다고 설명하였다.

교육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김두영·박원희(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지적 성장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이하 학력이 과반수를 차지하던 2005년 이후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삼원 외, 2018).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 사례로는 송지숙(2012)의 연구가 있다. 송지숙은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며, 이 센터가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관과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이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상일(2012)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특성과 요인으로 장애인의 재사회화를 강조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재사회화는 사회적 지지와 상호 관계망, 여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로 나뉘며, 공적 지지는 정부 및 지방 단체에서 제공되는 물질적인 이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적 지지는 가족·친구·이웃·시각장애인동료·종교단체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를 뜻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여가 활동, 교육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체계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연구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평가된다.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

1) 행위자-네트워크 개념과 구성요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사회적 관계나 현상을 설명할 때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모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80년대 후반에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존 로우(John Law), 미셸 칼롱(Michel Callon) 등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초기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적용되어 왔다(Latour, 1987; Callon, 1997).

ANT의 핵심 개념은 행위자(actor)와 네트워크(network)이다. 행위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도구, 기계, 제도, 정책과 같은 비인간 요소도 포함된다. 이러한 비인간 행위자들은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 행위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고 변화한다. 라투르(2005)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단순히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역할과 위치가 조정되는 유동적인 존재로 본다. 존로 역시 행위자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행위자를 개별적이고 단순한 존재로 보는 대신,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Law, 1992).

미셸 칼롱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을 “번역(translation)”이라고 정의했으며 번역의 4단계(문제제기-관심 끌기-등록하기-동원하기)를 제시했다. 번역은 한마디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과 협상을 의미한다. 번역은 또한 행위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행위자들을 설득하고, 협력하게 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Callon, 1997).

ANT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symmetry) 개념이다. ANT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동등하게 다루며, 이들 모두가 네트워크 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인 분석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ANT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Law, 1992).

이상에서 ANT를 정리한다면, 이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연구 적용 가능성

ANT는 과학적 실천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 사회적 관계 형성, 조직의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로 사용된다. 특히,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ANT는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고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각 행위자가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동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ANT를 원용하여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자 등의 인간 행위자와 함께, 비대면 시스템, 코로나19 정책, 인문학 프로그램의 콘텐츠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또한 네트워크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구조를 의미하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발전하는지 분석한다.

국내의 장애인 연구 분야에서는 ANT를 원용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는 이 이론을 적용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형성 및 사회적 통합 과정을 분석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을 비인간 행위자들과 함께 분석하여, 보다 복합적인 관계 형성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문학 강좌를 파악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및 비장애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비인간 행위자로서 인문학 강좌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12년째 이어져 온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진행된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고찰이므로 강좌의 분석 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해인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로 제한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참여자들이 느낀 프로그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원 관계자를 포함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동반자 및 봉사자) 각각 4명씩 모두 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주요 대상인 시각장애인 참여자는 1급에서 4급 사이의 장애 등급을 가지며, 해당 프로그램에 4년에서 12년간 참여한 장기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비장애인 참여자는 시각장애인의 동반자이거나 문화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해 온 문화원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이다. 각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시각장애 등급	학력	프로그램 참가 기간	나이	비고
참여자 1	1급	대졸	12년	60대	프로그램 기획자
참여자 2	3급	고졸/학부 재학	5~6년	50대	
참여자 3	4급	석사졸업	5~6년	70대	
참여자 4	1급	고졸	4~5년	60대	
참여자 5	비장애인	대졸	20년	50대	프로그램 기획자
참여자 6	비장애인	고졸	7~8년	60대	
참여자 7	비장애인	박사 졸업	10년	70대	
참여자 8	비장애인	대졸	3년	50대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인문학 강좌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와 지지로 형성되고 발전하는가에 대한 사례 경험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자료 분석에서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프로그램 자료를 바탕으로 강연 주제, 참여자 구성, 형식적 요소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간을 2019년부터 정한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과 후에 변화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의 인문학적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코로나19라는 비인간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성과와 참여자들이 느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참여자와 비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미리 준비한 면담질문지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면담하는 구조화된 면담방식과 사전 질문 없이 즉석에서 면담자의 생각과 경험을 끌어내는 비구조화된 면담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진행했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통합에 관한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1회 40~60분씩 총 2회 문화원 행사 전후에 만나서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고 면담이 끝나면 녹음한 자료는 바로 전사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질문지에 없는 내용이나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3차로 만나거나 전화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주요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심층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심층 면담 질문목록 범주

영역	심층 질문 요소
인문학 강좌 참여동기	-참여동기 -참여에 영향을 미친 사람, 정보, 주체적 동기
인문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혹은 불평도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경험 -프로그램 강사진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주체 기관(시각장애인문화원)에 대한 경험과 의견
인문학 강좌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	-참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 및 계기 -코로나19와 인문학 강좌 참여와의 상관관계 -참여를 통한 내적 성장에 관한 경험 -참여를 통해 형성된 동료 혹은 비장애인과의 관계 -개인의 사회성의 발전 경험

사례연구에서 사례자들과의 라포형성은 연구 시작 단계와 자료수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연구 목적과 동의에 관한 서명을 받는 것, 신뢰를 구축하고 연구 접근 시 예상될 수 있는 혼란이나 어려움을 미리 설명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John W. Crewwell · Cheryl N. Poth, 2018:86). 본 연구자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 출강한 강사인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과 5~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역사문화탐방에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형성한 오랫동안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내 인간 행위자(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 강사, 운영자)와 비인간 행위자(코로나19 정책, 비대면 학습 시스템, 인문학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행위자가 프로그램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을 탐구하고, 이러한 행위자와 네트워크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문학 강좌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작용

1) 행위자로서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이하 문화원)은 2003년 2월(7월에 법인설립)에 개원해서 올해로 20년째 운영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상대방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가치 있는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운영과 주요 사업은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대구시문화재단, (주) K-토토 등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평균 1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주요 사업 활동사진(문화원 제공)

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사업과 프로그램으로는 시각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 기행과 인문학 강좌, 도서 낭독아카데미, 문화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문화 나들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원에서 인문학 강좌의 시작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 사업 종료 후에도 민간기업을 비롯한 여러 지역 문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

2012년도에 우리가 한국연구재단에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생겨서 그때 지원했는데 선정되어 천 5백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인문학 강좌가 3년 연속 선정되어서 ... 연속 3년 했고 그 후로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참가자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후로 평화 큰 나무 복지재단이라든지 지역의 문화재단같이 민간이나 공공기관 사업에 꾸준히 지원하고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참여자 1>

문화원의 실무진에는 시각장애 1급인 이사장과 원장,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시각장애인인 홍보실장과 간사가 있다. 문화원의 실무진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꾸려진 점은 인문학 강좌를 오랫동안 운영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비시각장애인인 홍보실장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사진을 도와 문화원의 각종 사업과 행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20년간 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 번도 우리 시각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문화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문화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된 마인드와 교양을 갖춘 봉사자가 옆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비장애인만큼 잘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5>

문화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문화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비인간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ANT 관점에서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인간 행위자(시각장애인, 강사, 비장애인 참여자)와 비인간 행위자(프로그램, 콘텐츠, 기술적 지원)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2) 코로나19 전후 인문학 강좌의 변화와 운영 현황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환경 속에서 기존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감이 심화되었고,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이 이들의 정신적·정서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쳤다(유지영·오충원,

2021) 이는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던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와 회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해 2019년도 문화원에서 진행한 인문학 강좌와 2020년도 인문학 강좌 현황을 보면 그러한 시기적 상황을 보여준다.

〈표 3〉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2019년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의 주제	인문학 범주	참가인원
1주	04. 11	제 4차 산업혁명과 아날로그적 감성, 시 읽고 쓰기 1차	문학	16명
2주	04. 18	4차 산업혁명과 아날로그적 감성, 시 읽고 쓰기 2차	문학	18명
3주	04. 25	영화감상 및 배로 즐기기 (1)	예술	15명
4주	05. 02	영화감상 및 배로 즐기기 (2)	예술	22명
5주	05. 09	인생은 연극	예술	17명
6주	05. 16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고전	17명
7주	05. 23	클래식 -쇼팽	예술	19명
8주	05. 30	클래식 -헨델	예술	20명
9주	06. 13	클래식 -말러	예술	21명
10주	06. 20	유럽 여행 백배 즐기기 /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까지	여행 인문학	18명
11주	06. 27	즐거움 윤리학 /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22명
12주	07. 04	노자를 알면 왜 편안해지는가?	철학	24명
13주	07. 11	경북대 박찬석 총장님의 삶과 인생	명사초청	55명
14주	07. 18	나를 치유하는 고전의 지혜 - 논어	고전	22명
15주	07. 25	나를 치유하는 고전의 지혜 - 시경	고전	23명
16주	09. 19	도덕경	철학	19명
17주	09. 26	시 낭송 “마음을 읽다”	문학	26명
18주	10. 10	6070 영화 음악 이야기	예술	17명
19주	10. 17	베이컨 에세이 “죽음에 관하여”	문학	20명
20주	10. 24	우리는 행복 할 수 있을까?	철학	23명
21주	10. 31	공감	기타 인문학	21명
22주	11. 07	우리는 왜 시를 읽어야 하는가?	문학	23명
23주	11. 14	“논어” 그 맛없음에 대한 찬미	철학	17명
24주	11. 21	힘 빼고 사는 법 : 철학자들의 삶	철학	16명
25주	11. 28	성악의 의미와 발생법	예술	22명

일반적으로 인문학 강의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강의실에서 매주 목요일 6시에 시작해서 강의 한 시간, 20~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의 주제들은 문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 장르를 위주로 4차산업이라는 시대적 특성에 맞는 감성과 철학적 사고를 키우게 하는 강의 주제와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철학, 고전, 일반문학, 음악과 영화, 시 쓰기, 연극, 지역의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듣는 전기적 삶 등 강의 주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 등에서 진행되는 강좌들과 비슷하거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인문학 강좌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강의 주제도 문학으로 한정되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강사 섭외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출강해온 한 강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강사는 고구려 시대의 교훈적인 동화와 설화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팬데믹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해소될 때마다 문화원은 조금씩 인문학 강좌를 재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은 10년간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사와 실무진,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덕분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참여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이는 강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4〉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2020년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의주제	인문학 범주	참가인원
1주	5. 14	도끼 이야기(1) : 도끼 바보 이야기-우치 1	문학	16명
2주	5. 21	도끼 이야기 (2) : 해설과 토론 : 우치 2	문학	18명
3주	5. 28	바지 이야기 (1) : 바지 바보 이야기 : 미움 1	문학	24명
4주	6. 4	바지 이야기 (2) : 해설과 토론 : 미움 2	문학	22명
5주	11. 5	장독 이야기 (1) : 장독 바보 이야기 : 만심 1	문학	26명
6주	11. 12	장독 이야기 (2) : 해설과 토론 : 만심 2	문학	28명
7주	11. 19	영감 이야기 (1) :영감 바보 이야기 : 욕심 1	문학	23명
8주	11. 26	영감 이야기 (2) : 해설과 토론 : 욕심 2	문학	28명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정은 관심끌기(interestment)의 중요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강사와 프로그램(비인간 행위자)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인간 행위자)의 관심을 끌고 유지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유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강사와 실무진, 참여자들 간의 신뢰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다. 강사의 재능기부와 프로그램의 지속성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감

을 얻는 데 기여한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 이러한 상호작용은 문화원과 인문학 프로그램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코로나19 시기(2020~2022) 진행된 인문학 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범주는 여전히 과거와 비슷하게 고전, 철학, 문학, 예술, 사회학, 그리고 기타 인문학(여행, 초청 인사의 전기적 삶 등)으로 분류된다. 팬데믹 기간 상황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 혹은 강화가 반복될 때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표 5〉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2021년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의주제	인문학 범주	참가인원
1주	5. 13	차향과 명상	기타 인문학	26명
2주	5. 21	논어 그 맛없음에 대하여	철학	21명
3주	5. 27	슈만과 시인의 사랑	예술	15명
4주	6. 3	시의 향기 : 시 낭송의 즐거움	문학	14명
5주	6. 10	노자가 지닌 세 가지 보배	철학	17명
6주	6. 17	노자는 왜 물처럼 살라고 했을까?	철학	20명
7주	6. 24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기타 인문학	23명
8주	7. 1	문학작품을 향유한다는 것	기타 인문학	15명
9주	7. 8	시 읽기의 표층과 심층	문학	24명
10주	8. 19	문학을 통해 본 초월 현상	문학	20명
11주	8. 26	한국 풍류 문화의 멋과 조화	기타 인문학	16명
12주	9. 2	음악을 통해 본 죽음의 미학	예술	27명
13주	9. 9	죽음과 철학	철학	16명
14주	9. 16	스트레칭과 반딧불 놀이	놀이	15명
15주	9. 23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대사연습	문학	20명
16주	9. 30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대사연습	문학	21명

코로나19로 소극적으로 열렸던 인문학 강좌는 2021년에는 조금씩 회복해 가다가 2022년에는 거의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횟수와 참여자 수가 증가하였다.

〈표 6〉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2022년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의주제	인문학 범주	참가인원
1주	5. 19.	노자를 알면 즐겁고 편안해지는가!!!	철학	25명
2주	5. 26.	전문가 정신은?	기타 인문학	23명
3주	6. 2.	천억보다 귀한 시 '한 줄의 시인'	문학	26명
4주	6. 9.	실크로드	기타 인문학	28명
5주	6. 16.	푸치니의 삶과 음악	예술	30명
6주	6. 23.	차와 마음 비움	기타 인문학	29명
7주	6. 30.	상상과 연극	예술	23명
8주	7. 7	현명한 부모로서, 행복한 시인으로 살아가기	기타 인문학	30명
9주	7. 14.	내 마음 챙기기	기타 인문학	25명
10주	7. 21.	내 마음 행복해지기	기타 인문학	27명
11주	9. 22.	노자와 장자는 왜 쿼를 강조했는가?	철학	18명
12주	9. 29.	신명 나는 국악 한마당	예술	20명
13주	10. 6.	당(唐)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문학	31명
14주	10. 13.	영화의 심장 소리 시인이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	기타 인문학	26명
15주	10. 20.	가을밤에 듣는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	기타 인문학	20명
16주	10. 27.	영화와 함께하는 음악	예술	27명
17주	11. 03.	참삶, 아름다운 마무리 //well dying	철학	30명
18주	11. 10.	북한 다녀온 이야기	기타 인문학	32명
19주	11. 17.	가곡 교실	예술	29명
20주	11. 24.	이스라엘 삶의 이야기	기타 인문학	42명
21주	12. 1.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예술	33명
22주	12. 08.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공연	37명

〈표 3~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학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고전과 철학, 역사와 문화, 시 낭송과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범주의 인문학 주제로 꾸준히 진행되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 걸쳐져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자아실현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인문학 프로그램은 철학과 문학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음악과 예술을 통해 문화적 교양을 쌓으며, 시민참여 교육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배우는 과정을 포함한다.

김두영·박원희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체계는 인문 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문화예술교육, 학력 보완교육, 기초 문해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등 6가지로 분류된다(김두영·박원희, 2013).

〈표 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별 세부 분류표

1	인문교양교육	인문학적 교양 · 사회재활 · 생활소양
2	직업능력향상교육	전문직업교육 · 기초직업교육 · 자격인증
3	기초문해교육	한글생활문해 · 기초자립생활 · 한글문해
4	학력보완교육	초등학력보완 · 중등학력보완 · 고등학력보완
5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숙련 · 문화예술향유 · 여가스포츠
6	시민참여교육	시민활동 · 시민역량 · 시민의식

재구성 : 김두영 · 박원희, 2013 : 255

〈표 6〉에 비추어 볼 때 인문 교양교육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문화원의 『논어』와 화이트 헤드의 유기체 철학, 톨스토이 작품 등과 같은 주제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의 핵심적인 실천 영역으로서 문화원의 프로그램에서 베토벤의 음악이나 한국 가곡, 시 쓰기 등은 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시민참여 교육의 영역에는 시민의식 프로그램, 시민역량 프로그램, 시민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쇼리스(Earl Shorris)가 “인문학이라는 지적 동력 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얼 쇼리스 2007: 27).”라고 규정했듯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과 시민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문화원의 인문학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철학과 문학은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 등 참여자들의 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문학이다. 따라서 인문학 범주는 시민의 평생교육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철학, 문학, 예술을 통해 참여자들이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문학프로그램의 모든 강의 내용은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서 강의 후 언제라도 문화원 회원들이 보고나 들을 수 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은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 인문학프로그램의 강의 내용을 회원들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강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홈페이지 자료실 조회수는 평균 20~30회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강의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1) 실무진과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코로나19 기간에도 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실무진의 헌신과 참여자들의 열정에 의해 지속되었다. 문화원의 실무진은 담당 실장 <참여자 5>와 두 명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장은 매년 인문학 강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진을 섭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간사와 함께 포스터 제작과 홍보를 담당한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강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장은 시각장애인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하는 등, 회원들이 문화원과 인문학 강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히 참가해야 하나 마나 별로 고민안한 것 같아요. 선생님. 워낙 매주 목요일은 문화원에 가는 날이구나, 인문학 강의를 듣는 날이구나 하는 것이 정해져서 습관처럼. 그냥 좋아요. 가면 사람들 만나고 좋은 강의 듣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특히 강사님이나 실장님이 질문하고 발표하게 하는거 아직까지 떨리지만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4>

실무진은 회원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강사진 선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저의 문화원에 나오시는 시각장애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10년 넘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장애가 있으면서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분도 있구요,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다시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언론과 접촉할 때나 강사분들을 섭외할 때나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들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참여자 5>

실무진의 관심끌기(interestment) 노력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자각하게 만드는 행위자로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프로그램, 기술 지원)와 인간 행위자(참여자) 간의 대칭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문화원의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회원들이 꾸준히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2) 인문학 강좌를 통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상호작용

참여자들은 인문학 강좌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 4>는 강의에서 매번 새로운 영감을 얻고자 하며, 이 과정이 그에게 꾸준한 참여동기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한다.

강의 들으러 가면 다양한 강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를 듣고 와도 그 한 시간 중에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갖고 가거든요. 오늘 하루도 강의 들을 때 내게 하나 꽂히는게 있으면 좋겠다~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그래서 저는 거의 안 빠지고 가요. <참여자 4>

이처럼 꾸준한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참여자 8>의 사례에서 보듯이, 강의 자체가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봉사한다는 생각도 들고, 강의를 들으면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맘이 편해요. <참여자 8>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작용의 장으로, 정서적 안정과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 4>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학습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근데요 저기 선생님,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선생님처럼 일반 사람이 다 다르듯이 장애가진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소심해서 10년 20년씩 집에 있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그냥 일반 학교 다니면서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일반학교 나오면서 절친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를 가진 거에 대하여 한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자 4>

<참여자 7>은 문화원에 오랫동안 출강한 강사이며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

누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을 언급했다.

*시각장애인과 오래동안 함께 하고 있어서 이제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또 제가 가진 지식을 함께 향유한다는 부분이 좋아요. 저 또한 배우구요. <참여자 7>*

이와 같이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존중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있다. 실무진과 강사, 참여자들은 매주 만남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상호 존중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인문학 강좌가 단순한 강의를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저는 여기 인문학 강좌에서 (예술적인 방면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예술 방면 쪽의 강의를 참 좋았고, 또 철학적인 강의도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옛날엔 재미없었는데 점점 나에게 하나라도 들어오니까 재밌더라고요... .. 요즘 악기도 하나 첼로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가곡 수업에도 더 재밌고 가곡이나 악기를 잘 배워서 연극처럼 선보이는 계기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기대감도 더 커져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꾸준한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적 관계 형성. 둘째, 대부분 참여자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셋째, 인문학 강좌 참여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문화원의 원장과 이사장이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며 내적 성장을 이끌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문학 강좌는 실무진과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마인드를 통해 만족도와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참여동기와 기대감을 이끌어낸다.

3) 인문학 강좌를 통한 사회적 지지와 관계 확장

문화원의 실무진들은 인문학 강좌에서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여자들의 질문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단순한 즐거움과 사회참여를 넘어 지적 성장과 소속감을 형성하였다.

원래 학부 대학원에서 국문과를 나왔죠. 그래서 인문학 강좌 자체가 좋았어요. 특히 글쓰기나 시 낭송 시간이 좋아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는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자 3>

<참여자 3>은 인문학 강좌가 열릴 때마다 시 낭송과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로, 본 연구자가 오랜 기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참여자 5>의 적극적인 유도를 통해 다수의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질문을 주고받고, 주제에 맞는 발표와 시 낭송에 참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초기에는 실장님이 프로그램참여에 대해 전화해 줄 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은 가보고 싶어가 참여했는데 좋았어요. 점점 배우는 재미도 늘고 같은 시각장애인들과 동질성과 유대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자꾸 가게 되었어요... 실장님이 제가 올 때마다 막 반겨주고, 질문도 하게 하고 내세워주니까 성취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문화원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었어요. <참여자 2>

<참여자 2>는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발표할 기회를 얻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유대감과 소속감은 비장애인 참여자에게도 발현되었다. 그들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활동을 연결하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역사탐방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자원봉사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강화해 나갔다.



[그림 2] 인문학프로그램 진행 모습(문화원 제공)

따라서 인문학 강좌는 프로그램의 인문학적 주제들이 잘 짜여진 것도 있지만 실무진과 강사진, 그리고 참여자 각각의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 즉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2021년과 2022년 연말에 진행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연극공연으로 이어졌다⁴⁾.

이 연극 공연은 대구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것으로, 첫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협력 공연이었다.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만든 이 공연은 인문학 강좌에서 쌓은 시 낭송, 노래, 스피치 등의 기량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잃고 재할하는 과정을 재연하여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비시각장애인들도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통해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며, 시각장애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연극공연하는 모습(출처: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제공)

결국,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서로의 교류를 통해 상호 존중과 포용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나갔다.

4) 영남일보, 2021년 11월 30일 기사 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활용하여,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진행된 인문학 강좌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관계 형성과 사회적 통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장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학습 욕구를 자극하는 데 기여하였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여자는 문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강사진의 강의 내용과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조화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적 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둘째, 인문학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적 요소들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서적 연결과 화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인문학프로그램의 다양한 주제와 포맷은 이러한 정서적 연결과 화합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셋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관점에서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간 행위자인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 강사와 실무진은 강좌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신뢰를 구축하였다. 비인간 행위자인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기술적 지원, 강좌 주제 등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대칭적 상호작용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 확장과 지지의 결과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연극 공연이 성사되었다. 연극은 인문학 강좌에서 형성된 상호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예술적 활동으로 승화시킨 사례로서, 참여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코로나19 기간에 진행된 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관심 끌기와 질의응답을 통한 참여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실무진의 노력과 강사진의 재능기부와 비장애인들의 봉사 정신, 시각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확장하는 매개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학 강좌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관계형성과 지지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음을 밝힘으로써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더 많은 지역과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며 완전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영 (2014). 시각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교육·복지 욕구 분석. **시각장애연구**, 30(2), 115-137.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45-271.
- 김두영, 장철승, 조창빈 (2022).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문화·여가활동 추이 및 과제. **시각장애연구**, 38(2), 45-65.
- 김상원, 엄문설, 안새미, 이양희, 조준동 (2018). 시각장애인의 스트레스, 여가생활,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시각장애연구**, 34.1, 25-39.
- 김호연, 고등영 (2015).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찰. **시각장애연구**, 31(2), 43-68.
- Bolt, David (2018). 장애 인문학(전지혜 역), 서울: 학지사.
- 송지숙 (2019). 사회통합을 위한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역할: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대회지**, 1-10.
- 오성은, 허수연, 이유신, 박정미, 박재홍. 코로나19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62.62 (2023)**: 179-206.
- 얼 쇼리스 (2016). 희망의 인문학(고병현 외 3인 역), 서울: 이매진.
- 유지영, 오충원 (2021). 재난약자로서 시각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에 관한 연구. 146-146.
- 원영미, 전지혜 (2023).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9.59**: 89-121.
- 이계승 (2014).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 자본의 구성 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 375-402.
- 이은환, 김욱 (2021). 코로나19, 감염재난이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1-135.
- 이정화, 이옥순 (2007). 중년층의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성별 및 학력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 노년학연구**, 16 : 85-104.
- 한상일 (2012).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덕희, 임승희 (2021). 중도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

- 향, **인문사회 21 12.3** : 2995-3010.
- 황지연 (2017).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인지발달장애학회지**, 8(1) : 71-88.
- Creswell, John W. (2021). 질적 연구방법론(조흥식 외 공역). 서울: 학지사.
- Bengt Nirje. (1969). "The normalization principle and its human management implications". In R. Kugel & W. Wolfensberger (Eds.), *Changing Patterns in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Mentally Retarded*. President's Committee on Mental Retardation.
- Callon, M. (1997). Actor-Network Theory - The Market Test. In J. Law & J. Hassard (Eds.),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Blackwell Publishing.
- Latour, B.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 Law, J. (1992).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 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Systems Practice**, 5(4), 379-393.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Wolfensberger, W. (1983). "Social Role Valorization: A proposed new term for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Mental Retardation**, 21(6), 234-239.

부록

〈표 8〉 2017년 이후 인문진흥기본계획 비교

구분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017~2021)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2022~2026)
추진 배경	- 국가경제의 성장에 비해 개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향상되지 못함 -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공동체 해체 위기가 대두 -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간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지혜 함양을 본질로 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필요 - 인문정신문화가 개인과 공동체 위기 해결 및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정책 추진	- 뉴노멀 시대의 등장과 인문학 - AI·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로, 획일화된 생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산업사회에 충격 요인으로 작용 - 선진국들은 미래의 변화에 발맞추어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탐구하고 문제를 정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 - 인간의 본질과 실존적 삶의 형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을 생산·축적하는 인문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그간의 성과와 한계	-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가 / 단순 지식 위주로 인문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부족 - 대표 매개기관인 도서관·박물관의 인문서비스 확대 / 인문 친화적 공간이 부족하고 현장의 기회역량 강화 요구 - 세대단절, 문화소외 등을 고려한 정책사업 추진 / 큰 틀에서 체계적인 선순환 구조 형성 미흡 -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법·제도적 기틀 마련 /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기반 구축이 과제	- 인문학 진흥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인문학의 외연 확대: ‘대학’, ‘연구’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인문학의 외연 확대 -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인문학 연구지원: 더 많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관련 학술지원 예산규모 점진적 확대, 전임 연구자 & 인문학 분야 연구소 예산 지원 확대 - 한계: 정채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된 지원 / 사회 변화에 대한 인문학 대응 미흡 / 인문학 진흥 정책의 단절
비전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 진흥
목표	-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 -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 본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인문학의 발전 -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인문학의 도전
과제	〈전략 및 중점과제〉 1) 인문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공 2) 인문활동의 자행력 신장 3) 공간의 인문적 활용 촉진	인문학의 본질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1) 대학의 인문학 교육·연구역량 확보 2) 우수 인문학 연구자 양성 및 연구지원 3) 대학 외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내실화

구분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017~2021)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2022~2026)
	4) 문화기반시설의 매개역량 강화 5) 사회적 화두에 적극 대처 6) 인문의 산업성 활용 및 국제적 확산 7) 장기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반 정비	인문학의 새로운 도전: 융합, 국제화 디지털 확산 1)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 도전 2) K-인문학으로의 발전 및 확산 3) 디지털 인문학 2.0: 축적에서 확산으로 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확산 1) 대중·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2) 인문학 진흥 추진체계 구축 3)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출처: 교육부 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논문 투고 : 2024.10.15.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Interaction between Visually Impaired and Non-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through Humanities Lectures : Focusing on Actor-Network Theory

GuemHee Cho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ocial interaction experiences of visually impair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centered around the humanities lectures at the Daegu Visually Impaired Cultural Center and to explore the interactions and network formations that occur in this process.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participants, including four visually impaired and four non-disabled individual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r over three years from 2019 to 2022.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December 2022 to May 2023, involving participants aged 50 to 70 with diverse educational backgrounds and experiences.

The analysis applied Actor-Network Theory (ANT) to categoriz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to themes such as program participation motivation, psychological stability, and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humanities lectures contributed to build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nd inclusive networks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human actors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non-disabled participants, instructors) and non-human actors (COVID-19

* Academic Research Professor, Daegu Catholic University

policies, online systems). This study interprets the integration of visually impair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as a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s from an ANT perspective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signing programs that reflect this perspective.

Keywords: Visually Impaired, Non-disabled, Social Integration, Humanities Program, Actor-Network Theory, COVID-19 Pandemic